

영광, 식량·원에 업무평가 '최우수군'



영광군은 벼 적정 재배면적 확보 및 시설원에 재배면적 확대 및 원예·산업분야 청년농업인 육성 등 식량·원에 분야 시책추진을 인정받아 2022년 전라남도 식량·원에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군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식량 및 원예 분야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평가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식량정책분야, ▲원예산업분야, ▲아열대농업분야 등 3개 분야 14개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

영광군은 ▲추가 지원을 통한 농업정책보험 가입자 수 증가, ▲시설하우스 신규 면적 증가 등 고부가가치 농업 실현 기반 확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공모 사업 선정,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등 다양한 신규 시책을 발굴,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서종민 기자

함평,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함평군이 '2022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포상금 800만 원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적 및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한다.

평가지표는 ▲신규수급자 발굴 비율 및 노력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예산집행 실적 ▲행복e음 변동알림 처리현황 ▲긴급복지 집행실적 ▲긴급복지지원 신속처리율 등 6개 항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표별 추진실적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고, 전국 31개 지자체 공적서류를 심사한 후 최종 26개 우수지자체를 확정했다.

군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신규 수급자 책정비율 ▲가족관계 해체 가구 보호승인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9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00% 지급 ▲수급자 변동처리 및 확인조사 100% 완료하며 모든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함평=김홍희 기자

장성, 취약 과수농가 전정비용 50% 지원

고령농·여성 농업인 등 대상 단, 과원을 오랫동안 방치해 전정작업이 어려운 필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내년 1월 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군은 내달 10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2월 말일까지 장성군 과수전정단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3월 중 전정 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전정 비용은 1인 1일 기준 사과 18만 원, 감 16만 원으로, 1인당 최대 1ha(헥타르)까지 지원한다. /장성=심재식 기자

나주, 내년 현안사업 정부 예산 3687억원 확보

에너지신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초석 정주여건 개선·첨단농업 선도·SOC분야 반영

나주시가 내년 국비예산을 분야별로 두루 확보함으로써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에너지신산업, 정주여건·안전 개선, 역사·문화 복원·정비, 관광, SOC(사회간접자본)분야 51개 현안사업 예산 3687억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내년 긴축 재정을 이유로 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 출신의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회, 중앙부처를 향한 발품 세일즈에 주력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 국비예산 확보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당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됐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형산강 자전거길 조성',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장어린이집 설립' 등을 신규 사업으로 대거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첨단과학도시 조성을 위한 현안사업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비롯, 10억원(총 사업비 450억),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3억 5000만원(300억), '60GHz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 14억 5000만원(132억 원) 등 546

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반영됐다.

여기에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지원' 250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0억원 등 에너지분야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예산도 꼼꼼히 확보했다.

멸종 위기종 보전·재해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도 두루 챙겼다.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 최대 숙원사업인 '복합혁신센터' 등을 신규 사업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장어린이집 설립'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원도심의 유구한 역사·문화자원과 영산강 전체 생태 물길을 활용한 민선 8기 관광 활성화 사업도 청신호가 켜졌다.

윤병태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형산강 자전거길 정비' 20억원, '나주읍성·관아·향교 복원·정비' 33억 5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또 국립나주박물관 디지털 복합문화관 건립 47억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적지·타당성 조사 용역 2억원, 마한역사문화관 유적 보존·정비 15억원(390억원) 등이 반영돼 영산강 유역 고대마한문화 규명에 따른 관광 명소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농업 분야는 대표적으로 '농산업 빅데이터센터(허브) 건립' 2억원(330억),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19억 7000만원이 반영됐다.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지도 55호선 확장 등 2593억원 규모의 주요 SOC사업 예산도 폭넓게 반영돼 호남의 교통 요충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지자체 경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재부와 중앙부처, 국회를 상대로 사업 추진 논리를 개발해 당위성을 꾸준히 어필한 결과 목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장흥,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 '첫 단추'

국립 전남호국원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2억 원 확보

장흥군이 '국립 전남호국원'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24일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 전남호국원' 용역비가 포함되면서 장흥군이 전남호국원 유치전에서 한 발 앞서게 된 것이다.

전남호국원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490억 원 규모의 전역 국비 사업이다.

전북 임실호국원이 오는 2024년 만장됨에 따라, 전남 지역에 새로운 국립 묘지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전남호국원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장흥군은 전남호국원의 지역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김승남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조를 맞춰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용역비 반영을 성사시켰다. /장흥=임민기 기자

화순, 에너지바우처 신청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

화순군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

화순군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12월 30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립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 이 노인(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카드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4만 8100원, 2인 세대 20만 3600원, 3인 세대 27만 80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 2100원이다. /화순=주용현 기자

담양, 특별교부세 22억원 추가 확보... 지역현안 해결

창평 전통시장 화재 응급복구사업 예산 확보·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시범 구축

담양군은 행정안전부 제3차 특별교부세로 2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으로는 ▲창평 전통시장 화재 응급복구사업(3억 원) ▲대나무박물관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3억 원) ▲대전면 대전로 보행환경개선사업(3억 원) ▲농어촌 도로102호선(담양 삼만 사면보강사업(5억 원) ▲평지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3억 원)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시범 구축사업(5억 원)이다.

특히 이번 특별교부세로 지난 10일 창평전통시장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시범 구축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담양군과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과 전략적 대응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